

꾸란 112장에 나타난 반기독교적 변증요소 연구
A Study on Qur'an 112 and Its Anti-Christian Polemics

I. 들어가는 말

혹자들은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상에서 단일신론(monotheism)을 가르치는 종교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슬람의 단일신관(tawhīd)이 반유대교적, 반기독교적 교리를 강조하며 변증적(polemical)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것은 꾸란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드러내는 양면성(긍정적 태도들과 부정적 태도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예를 들면, 꾸란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성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듯 하지만, “그들이 성서를 변질(tahrif)시켰다”는 비난을 한다. 그리고 꾸란이 최후에 계시로서 그 이전의 모든 경전들을 대체하고 있음을 증거한다.¹ 반기독교적 변증적 이슬람 교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첫 단추는 타우히드라는 이슬람 단일신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영어로 monotheism이란 단어, 혹은 한국어로 단일신관 혹은 유일신관을 언급한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슬람의 타우히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유일신관(Trinitarian monotheism)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수립된 반기독교적 사상에 서 있다.

본 연구는 무슬림들이 가진 타우히드(단일신론)의 기초가 되는 꾸란 112장 (수라 알이클라스) 연구를 통해서 꾸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안에 반기독교적 변증적 요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슬림들이 가진 타우히드 교리에 대한 강조는 동시에 반기독교적 변증 논리로 직결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무슬림들에게 증거하는 데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꾸란 112장의 주해에 집중하되, 본문의 언어적 분석과 더불어, 순니 주석가들의 자료와 하디스를 주요 자료로 참조할 것이다. 핵심적 질문은 “수라 알이클라스가 과연 타우히드의 핵심적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반기독교적

¹ 이슬람 이전의 경전들이 변질되었음을 주장할 때 언급되는 꾸란 본문들은 2:79; 2:75; 3:13; 3:78 등이 있다. 이 주제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평가하고 반론을 제시한 저서 Gordon Nickel, *The Gentle Answer to the Muslim Accusation of Biblical Falsification* (Calgary, Canada: Bruton Gate, 2015) [Kindle]을 참조하라.

논쟁적(polemical) 요소를 평가해 볼 것이다. 꾸란 해석에 있어서는 전통적 꾸란 해석 방식을 존중하여 순니 무슬림들의 견해에 주목하되, 현대 역사-비평학적(Historical-critical) 접근을 하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²

II. 수라 112장이 이슬람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꾸란 112 장은 다양한 호칭들로 불려 지는 바, 대표적으로는 수라 알이클라스(sūrah al-ikhlas), 수라 타우히드(sūrah al-tawḥīd), 혹은 1 절을 그대로 담은 “qul huwa allahu ’aḥad” 등이 있다. “이클라스”는 “순수”를 의미하는 단어로써, 알라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내용을 전달해 준다. 또한 수라 타우히드는 알라의 단일함을 강조하는 이슬람의 신조를 강조한다.³

수라 알이클라스의 중요성은 주요 하디스들의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꾸란 주석가들은 이 내용들을 매우 신중하게 여기며 설명한다. 먼저 “알라는 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무슬림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함마드는 “수라 알이클라스를 암송하는 것은 꾸란 3분의 1을 낭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전승이 있다.⁴ 무함마드의 부인인 아이샤의 전해준 말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밤에 취침하기 이전, 꾸란의 마지막 세 장(수라 알이클라스, 수라 알팔라끄, 수라 안나스)을 낭송한 뒤, 양손을 모아

² 꾸란 이해의 전통적(Traditionalist) 접근은 꾸란을 비롯하여 하디스, 아스밥 안누줄, 시라 등 이슬람의 전통적 자료들을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한 것이라 인정하고 꾸란 해석과 이슬람의 기원 및 교리의 발전과정을 그것들에 근거한다. 하지만 근대 성경학에서 역사비평학(historical-criticism)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꾸란에도 역사비평학적 접근이 이뤄지고 전통적으로 진위여부를 의심하지 않던 위의 자료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무슬림들 신앙고백적(confessional) 꾸란 연구에 반대하여 수정주의자들(revisionists)은 언어적, 역사적, 문서 고증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슬람의 기원과 꾸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당시 역사적 배경(milieu)도 재구성하려 한다. 현재 꾸란학의 수정주의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Karen Bauer, “The Current State of Qur’anic Studies: Commentary on a Roundtable Discuss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Qur’anic Studies Association* Vol. 1 (2016): 29-45; Devin Stewart and Gabriel Said Reynolds, “Afterword: The Academic Study of the Qur’an: Achievements, Challenges, and Prospect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Qur’anic Studies Association* Vol. 1 (2016): 173-183; Fred M. Donner, “The Qur’an in Recent Scholarship: Challenges and Desiderata,” in Gabriel Said Reynolds, ed. *The Qur’an in Its Historical Context*, 29-50 (Routledge, New York: 2008).

³ Abu Ameenah Bilal Philips, “The Three Shelters: A Commentary on Chapters 112, 113, & 114 of the Qur’aan.” <https://www.kalamullah.com/Books/Tafseer%20of%20The%20Three%20Quls.pdf>.

⁴ 부카리 하디스 6권, 책 61, 534-544번 및 8권, 책 78, 638번. <https://www.sahih-bukhari.com/Pages/results.php>. 이 내용은 싸히흐 무슬림의 하디스에도 언급되고 있다: <https://sunnah.com/search/?q=ikhlas>.

호흡을 불어 넣은 뒤 양손으로 그의 신체 부위를 문질렀다고 하며 이 행위를 세 번 씩 반복하곤 했다고 전한다.⁵

무함마드가 하루 시작하는 기도이나, 파즈르 기도에서 혹은 자발적 기도시 109장과 112장을 연결하여 암송했다는 전승도 있다. 109장이 카피룬(“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지 않는 자들⁶)에게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무함마드 자신이 예배하는 알라와 다름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경고하는 수라라면, 112장은 알라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슬람 주석가들도 존재한다.⁷ 또한 수라 알이클라스를 여러 번 낭송하는 자에게는 알라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과 심지어 수라 알이클라스를 사랑하는 자들은 잔나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내용도 싸히흐 무슬림 하디스에 나타난다.⁸

꾸란의 편집적 구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112장은 꾸란의 마무리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서 꾸란의 전체 가르침을 요약해 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113장과 114장은 믿는 자들이 알라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문이란 성격이 있다면, 꾸란 전체의 핵심적 가르침을 요약해서 가장 순수한 신앙고백을 응집해 보여주는 장이 수라 알이클라스라고 보는 것이다.⁹ 또한 교리적 측면에서는 이슬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인 타우히드를 가장 응집해 증거해 주는 것이 112장인 것이다.

수라 알이클라스의 중요성은 실천적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짧고 운율이 간결한 이유로

⁵ 부카리 하디스 6권, 책 61, 536번과 7권, 책 71, 644번. 싸히흐 무슬림의 하디스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https://sunnah.com/search/?q=ikhlas>.

⁶ 일반적으로 카피룬을 영어로 번역하면 “unbelievers (불신자들)”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의 의미가 아니다. 공일주는 꾸란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알라와 그의 보낸 무함마드를 믿지 않는 자들”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말임을 강조한다.

⁷ Sayyid Quṭb, *In the Shade of the Qur’ān*, vol. 18: Surahs 78-114, 292.

https://www.kalamullah.com/Books/InTheShadeOfTheQuranSayyidQutb/volume_18_surahs_78-114.pdf.

⁸ 싸히흐 무슬림, 리야드 살리히. <https://sunnah.com/search/?q=ikhlas>. 최영길은 수라 알이클라스에 대하여 와하비즘의 사상과 연결시키며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무함마드 이븐 압둘와합(Muhammad bin Abdulwahhab)은 타우히드를 실천한 자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까지 하였다.(1981: 12) 이러한 점들이 바로 알-이클라스 장을 중심으로 타우히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최영길, 수라트 알-이클라스(Surat Al-Ikhlās)를 중심으로 한 타우히드(Tauheed) 연구 『한국중동학회 논총』 34-1 (2013): 4.

⁹ Maulana Muhammad Ali, *The Holy Quran: Arabic Text with English Translation, Commentary and Comprehensive Introduction*, 2002 Edition, 1257. <https://muslim.org/english-quran/index.htm>. 아흐마디야 종파의 지도자가 쓴 꾸란 주석이다.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이 처음 꾸란을 외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우는 수라들 중의 하나가 112장이라고 한다. 아마도 개경장 알파티하 다음으로 많이 암송되고 반복적으로 기도시간에 사용되는 꾸란의 장일 것이다. 하지만 수라 알이클라스를 반기독교적 정서로 배우고 이해한 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 수라를 되새길 때마다 무슬림들의 사고 속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수라의 실질적 중요성이 쉽게 이해된다.

III. 꾸란 112 장의 역사적 배경

꾸란 112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여러 하디스와 아스밥 안누줄(asbāb annujūl: 수라가 주어진 정황들을 기록한 자료들)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난다. 문제는 그 정황 및 역사적 시점에 대해 이 자료들이 일관성있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라 알이클라스가 메카 초기 당시에 주어진 것인지, 메디나로 이주한 이후에 주어진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 정황과 시대적 배경이 수라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수라의 내용이 당시 메카에 있던 다신주의적 우상숭배자들을 대항하는 것인지, 혹은 메디나를 중심으로 무슬림들이 접촉이 있었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대항한 내용인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권위있는 초기 주석가들과 현대의 주석가들은 112장을 메카 수라로 보고 있다. 메디나 수라로 보는 주석가들과 전통들이 있지만 그 근거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수의 견해이다.¹⁰ 112장의 연대에 대해 수라의 시대적 배경을 결정하는데 외적 요인들(꾸란 수라들이 주어진 순서에 대한 하디스의 내용들, 아스밥 안누줄, 다양한 고전 주석가들의 견해들 등)과 내적 요인들(꾸란 텍스트들 사이의 증거, 타우히드의 주제가 대두된 시점과 이유 등)을 함께 고려하고 평가한 무슬림 저자들의 연구 논문은 결론적으로 메카 수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라가 짧을 수록 메카 수라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타우히드라는 중요한 주제는 이슬람 시작 초기부터 대두된 논쟁이기 때문에 메카 수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다.¹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메카 수라로 볼 경우 이슬람의 타우히드가 소개되는 112장에 내용이 상대한 세력들이 메카 지역의 다신주의적 우상숭배자들이었던 쿠라이쉬 부족

¹⁰ Seyyed Hossein Nasr, ed. *The Study Qur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Harper Collins, NY: 2015). [Kindle]

¹¹ Rasoul Muhammad-Jafari, Ali Hasannia, and Hossein Mohammadi, "Dating the Sūrah Al-'Ikhlās (Sūrah Al-Tawhīd),"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Understanding* 6 (2019): 201-213.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여겨진다. 실제로 112장이 주어진 정황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면 쿠라이쉬 부족 사람들, 다신주의자들(polytheists) 혹은 우상숭배자들(idolaters)이 무함마드에게 와서 “너의 신은 어떤 존재이냐? 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증거해 보라”는 요구를 했을 때 타우히드를 증거하는 수라 알이클라스가 주어졌다고 증거한다. 한 하디스는 메카를 방문한 유대인에게 무함마드가 먼저 “당신은 토라의 기록들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유대인이 “먼저 너의 신을 나에게 서술해 보라, 그러면 대답을 해 주겠노라”라는 요청을 했을 때 112장이 주어졌다고 증거한다.¹² 하지만 이 유대인을 언급한 하디스에는 사나드(연결고리)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권위가 약한 증거라고 본다. 즉 112장이 메카 수라라고 볼 때, 이 수라의 내용이 적용된 상대 세력들은 쿠라이쉬 부족, 즉 다신주의적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메디나 수라로 보는 경우 대부분은 그 상대 세력들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로 나타나고 있고, 타우히드를 증거하는 내용이 반유대교적,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논문에 의하면 메디나 수라로서의 정황을 설명하는 7개의 하디스 자료가 언급되는데, 모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대항하여 수라 알이클라스가 주어졌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한 개를 제외하면 모두 권위를 갖지 못하는 약한 하디스로 간주되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권위를 인정받는 하나의 하디스 조차도 이맘 사디끄(시아파의 6번째 이맘)로부터 들은 무함마드 이븐 무슬림이 전해준 내용으로 소개되는데, 유대인이 무함마드에게 와서 그의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해 보라고 하자, 3일동안 주저하고 있던 무함마드에게 이 수라가 주어졌다고 한다.¹³

위에 언급한 다양한 근거들에 기초해서 볼 때 112장은 메카 수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많은 무슬림 학자들은 메카 수라의 중심 주제가 타우히드이란 점에 주목하면서 이슬람 초기의 수라이라고 주장한다. 메카 당시 무함마드의 설교 중심 주제가 이슬람의 타우히드였기에, 112장 역시 메카에서 이슬람이 처음 시작할 무렵 주어진 내용이라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다양한 기록들이 메디나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수라가 원래 메카 시기에 주어진 내용이었으나, 메디나로 이주한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정황을 맞이한 무함마드는 동일한 수라를 재인용했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¹² Muhammad-Jafari, et. al., 205. 여기서 언급된 하디스 내용의 출처는 ‘Abdurrahman Muhammad Radi Ibn Abi Hatam, *Tafsir Al-Qur’an Al-Azim* (Riyadh: Nizar Mustafa Al-Baz Library, AH 1419)이다.

¹³ Muhammad-Jafari, et. al., 203. 이러한 저자들의 설명은 상당히 동의가 간다. 실제로 처음 주어졌다는 내용이 다시금 유사한 정황에서 언급되었을 때, 듣는 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 처음 주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다. 원래 처음 수라가 주어진 시기는 메카 당시이고 그 대상들도 쿠라이쉬 부족의 다신주의적 우상숭배자들이었지만, 후에 메디나에서도 동일한 타우히드의 내용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도 다시금 인용되었다고 설명한다.¹⁴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112장은 원래 이슬람 태동 이후 메카를 중심으로 쿠라이쉬 부족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당시 주어진 수라로서 우상숭배자들을 대항하여 이슬람의 “타우히드” 신앙을 증거한 내용이었다. 즉, 처음부터 반유대교적, 반기독교적 내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론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강화시켜 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112장이 메카 수라인 109장과 서로 신학적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109장은 메카의 우상숭배자들인 쿠라이쉬 부족 사람들을 대항하여 무함마드가 그들이 예배하는 신이 자신이 예배하고 있는 신과 다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109장은 수라 알카피룬이라 불러 지는데 이를 직역하면 아래와 같다.

(무함마드여, 이렇게) 말하라!

“이 불신자들이여!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으며,

너희들은 내가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며,

나는 너희들이 예배했던 것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며,

너희들은 내가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며,

너희들이 가진 종교와 내가 가진 종교는 서로 다르다.”¹⁵

이 내용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당시 쿠라이쉬 부족의 사람들이 가진 종교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자신이 예배하는 것과 다름을 부정적(negative)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수라에서는 “알라(Allah)”란 이름도 나타나지 않으며 “신(ilah)”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은 무함마드를 대항하여 “(너가 예배하는 신이 우리의 신과 그렇게 다른

¹⁴ Muhammad-Jafari, et. al., 208-209.

¹⁵ 본인이 아랍어 원문을 최대한 직역한 것. 학술적 연구를 위한 현대 영어 번역을 한 Droge는 아래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말하라. ‘너희 불신자들이여!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serve) 것을 예배하지 않으며, 너희들은 내가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해 오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며, 너희들은 내가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지만, 나에게서는 나의 종교가 있노라.” [Droge의 번역을 본인이 한글로 번역함] 참고로 아랍어의 “예배하다(‘abd)”는 단어는 “예배하다, 섬기다(serve)”란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Droge는 serve란 영어 동사를 사용한다. A. J. Droge, *The Qur’an: A New Annotated Translation*, rev. ed. (Sheffield: Equinox, 2014), 454.

것이라 한다면 도대체) 너가 예배하는 그 신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도전해 왔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알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라 알이클라스라고 볼 수 있다. 109장이 부정적 방식으로 알라의 유일성 강조(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예배하는 것과 다르다!)한 것이었다면, 112장은 “그렇다면 알라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affirmative) 서술로서 답을 주는 것이다. 즉, 112장의 원래 배경은 메카의 쿠라이쉬 부족 우상숭배자들을 대항하여 타우히드를 증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수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가진다.

IV. 꾸란 112 장의 의미 번역본들 비교

꾸란 112장은 짧은 네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들 역시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번역이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다. 문법적인 모호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단어가 갖는 의미가 해석하는 자의 견해에 의해 얼마든지 확대되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타당한 영어 번역으로 인정되는 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 1절은 대부분 “알라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서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번역된 현대 번역들(Abdul Haleem, Droge, Study Qur’an)은 “알라”라는 호칭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일반화된 영어 단어인 “God”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것은 최영길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알라”로 나타나는 아랍어 원래의 구절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2절에서는 번역본에 따라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난다. 2절은 단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바, “al-ṣamad”이란 단어가 꾸란 전체에 걸쳐 112장인 이곳에 단 한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래된 번역들에서 보이듯이 단순히 “영원하다”로 번역하기에는 그 단어의 의미를 분실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소수의 현대어 번역들(Egyptian Translation, Abul Ala Maududi, Study Qur’an, 그리고 Turkish Translation)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풀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영길 역은 단순히 “영원하다”고 전통적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꾸란의 의미 번역을 시도한 공일주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알라”라고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노력한다.¹⁶

3절은 대부분 역본들이 일치하지만 동사의 시제를 번역함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아랍어 원본은 모두 과거형을 나타내는 “lam + 비완료 동사”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¹⁶ 최영길, 『꾸란 주해』 (서울: 세창, 2010); 공일주, 『꾸란과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196.

이를 번역할 때에는 과거형을 쓴다. 대부분의 번역이 그 원리를 따랐지만 Study Qur'an은 3절의 첫 문장을 "He begets not"이라 하여 현재형을 사용하여 알라가 원리적으로 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¹⁷ 한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최영길 역이 "성부와 성자도 두지 않으셨으며"라고 번역하여 원문과 전혀 다른 의역을 보여준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라 함은 기독교인들 만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최영길은 반기독교적 변증적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번역한 듯 하다. 마지막 4절은 대부분의 번역이 일치하는 바, 알라에게 대등한 존재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영어, 터키어, 한국어 의미 번역본들 비교

아랍어 원문	Ali Yusuf	Pickthal	Abdul Haleem	Droge, 2014
قُلْ هُوَ اللَّهُ أَحَدٌ qul huwa allahu 'aḥad	Say: He is Allah, the One and Only;	Say: He is Allah, the One!	Say, 'He is God the One,	Say: 'He is God, One
اللَّهُ الصَّمَدُ allahu aṣṣamad	Allah, the Eternal, Absolute;	Allah, the eternally Besought of all!	God the eternal.	God the Eternal!
لَمْ يَلِدْ وَلَمْ يُؤَلَدْ lam yalid walam yūlad	He begetteth not, nor is He begotten;	He begetteth not nor was begotten.	He begot no one nor was He begotten.	He has not begotten and was not begotten,
وَلَمْ يَكُن لَّهُ كُفُوًا أَحَدٌ walam yakun lahu kufuwan 'aḥad	And there is none like unto Him.	And there is none comparable unto Him.	No one is comparable to Him.'	And He has no equal, None!'

Egyptian Translation ¹⁸	Abdul Ala Maududi ¹⁹	Study Qur'an, 2015	Turkish Translation ²⁰	최영길 역
---------------------------------------	------------------------------------	-----------------------	--------------------------------------	-------

¹⁷ 과거형으로 번역할 경우 "알라는 출생하지 않았고, 출생되지도 않았다"로 된다. 즉 알라의 출발점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형으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알라는 누구를 낳지 않는다는 보편적 원리로서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¹⁸ The Egyptian Translation, *Al-Montakhab: The Interpretation of the Glorious Qur'an in English* (Cairo, 2017), 1440.

¹⁹ <https://quran.com/112>.

²⁰ 터키어의 한국어 번역은 본 저자의 직역이다. Diyanet Isleri, *Kuran-i Kerim*. 동일한 웹페이지 참조.

Say O Muhammad: [He is Allah and He is One],	Say: "He is Allah, the One and Unique;	Say, "He, God, is One,	De ki: O Allah bir tektir. 말하라: 그는 알라이며, 단 하나이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고
[He is Infinite, Absolute, and all creatures, spiritual, animate and inanimate, are in need of Him while He is in need of no one],	Allah, Who is in need of none and of Whom all are in need;	God, the Eternally Sufficient unto Himself.	Allah her şeyden müstağni ve her şey O'na muhtaçtır. 알라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은 그에게 의존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He did not beget nor was begotten],	He neither begot any nor was He begotten,	He begets not; nor was He begotten.	O doğurmamış ve doğmamıştır. 그는 낳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And like unto Him there is none].	and none is comparable to Him."	And none is like unto Him."	Hiçbir şey O'na denk değildir. 어느 것도 그와 동격이 아니다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V. 꾸란 112 장 본문의 이해

Q 112:1 “말하라! 그는 알라, 유일한 분”²¹

이 장의 시작은 “말하라”는 명령어로 시작하는 바, 두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²² 첫째는,

²¹ 본문의 각 절에 나오는 번역은 저자의 의미 번역.

²² *Study Qur'an*은 일부 무함마드의 동료들은 “말하라”는 명령어 없이 이 수라를 낭송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무함마드가 타우히드를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라가 직접 무함마드에게 명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다는 것이다. Nasr, ed. *Study Qur'an*.

원시대적 배경에서 무함마드가 전하는 이슬람의 알라에 대해 도전해 오는 자들을 대항하여 알라가 직접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꾸란을 읽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우상숭배자들과 “이슬람이 전하는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알라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²³ 이런 의미에서 이 수라는 무슬림들에게 다아와의 사명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법적 측면에서 1절의 나머지 세 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는 이 문장이 명사화 평서문이고, “huwa (‘그’라는 3인칭 남성 대명사)”는 주어이며 “allah”는 술어로, 그리고 “’aḥad”를 “대용어(badal)”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알따바리는 huwa를 주어로, allah를 첫번째 술어로, 그리고 ’aḥad를 두번째 술어로 취급한다.²⁴ Maududi도 알따바리의 구문 분석을 취하여 “(너희들이 질문한)그는 알라이고, 그는 유일한 하나이다”라고 번역한다.²⁵ 어떤 이들은 “’aḥad (하나)”를 형용사로 보려고 하지만 정관사(al-)가 없기 때문에 엄밀한 문법적 의미에서는 형용사로 보기는 어렵다.

최영길 역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라고 번역하는데, 원문의 주어인 “huwa(그는)”을 빠뜨리고 “allah”를 주어로 간주하여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aḥad”에 대해서는 “한 분”이라는 술어로 처리했다. 이것은 엄밀하게 볼 때 아랍어 원문에서 많이 어긋난 번역이며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방식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결론적인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모두 알라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겠으나, 문장 구성상, 해석적 측면에서는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구절이 마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는 서술문이 아니라, 무함마드에게 도전해 보는 상대들을 향해서 그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그는 알라이고, 그는 유일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석가들은 문법적인 측면을 뛰어 넘어서서, 단순해 보이는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슬람의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을 가미하여 본문을 주해한다. 예를 들면 알 라지(al-Razi)는 huwa라는 단어 자체를 단순한 대명사로 보지 않고, “가장 위대한 알라의 이름(al-ism al-a’zam)”으로 간주하며, 심지어 huwa라는 명칭은 “알라”라는 이름보다 더

²³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석서들을 찾을 수 있는데, 세 명 주석가들(Abdu As-Saranbi, ibn Kathir, Maududi)의 영어 주석을 <http://www.alim.org>에서 읽을 수 있으며, 많은 아랍어 주석서들과 일부 번역된 영어 주석들은 <https://www.altafsir.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²⁴ Michel Cuypers and Jerry Ryan, *A Qur’ānic Apocalypse: A Reading of the Thirty-Three Last Sūrahs of the Qur’ān* (Lakewood, Atlanta: 2018), 286-87에서 재인용.

²⁵ Tafsir Maududi – Sūrah112. <http://www.alim.org/library/quran/AlQuran-tafsir/MDD/112/1>. Tafsir Jalalain 역시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https://www.altafsir.com> 참조하라.

뛰어넘는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²⁶ 이런 해설은 문법적 원칙들을 넘어서서 이슬람의 신학적 견해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여 원문이 전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큰 사상을 전달하는 접근이기에 본문 이해 측면에서는 의문이 가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aḥad라는 단어에서 비롯된다. 원래 문법적으로 아랍어에서 하나임을 지칭하는 단어로 'aḥad 혹은 waḥīd가 사용되는데, 두 단어의 의미로는 “하나”를 말하면서도 용례에서는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차이는 waḥīd는 일반적으로 긍정문에서 사용되는 반면, 'aḥad는 부정문에서 사용된다. 즉, “교실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때 부정을 표시하는 단어(la 혹은 4절에서와 같이 lam)와 함께 사용되어 “하나도 없음”을 강조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1절에서는 긍정 서술문임에도 불구하고 'aḥad가 사용되어 알라의 하나됨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석가들은 이를 해설하면서 'aḥad의 특별한 용례를 언급한다. 예를 들면, 마우두디는 여기서의 'aḥad는 긍정문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라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를 강조하는 특수한 용례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²⁷ 어떤 이들은 waḥīd가 피조물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이해되는 “외적 하나됨”을 표현하는 반면, 'aḥad는 창조된 세계의 존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내부적 하나됨(internal oneness)”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설명한다.²⁸ 주석가들 대부분은 이 단어 'aḥad이 품는 “알라의 하나됨”은 어떤 형태의 복수성도 부정하고, 분해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 하나임을 강조한다.

함축적 의미 측면에서, 마우두디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우상숭배자들의 사고에 대항해서는 “알라는 어느 신들이라는 동류 그룹에 속한 자도 아니며, 그 이전에 다른 신에게서 창조세계를 물려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에게 물려줄 자를 두고 있지도 않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 다른 주석가 사란비는 'aḥad란 단어가 단순히 수자적 “하나됨”을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Completely Unique; the absolutely unique)”를 내포하는 것을 강조하여 알라만이 예배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강조한다.²⁹

이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는 이 단어의 사용이 일반적 용례를 벗어난 것이고,

²⁶ Nasr, ed. *Study Qur'an*에서 재인용. 또한 어떤 학자들은 두 단어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waḥīd는 다른 수자들과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즉, 둘, 셋으로 연결되는 것에 상반하여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 'aḥad는 외적 요소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됨을 표현한다고 한다.

²⁷ Tafsir Maududi. <http://www.alim.org/library/quran/AlQuran-tafsir/MDD/112/1>.

²⁸ Nasr, ed. *Study Qur'an*.

²⁹ As-Saranbi, Sūrah Al-Ikhlās. <https://archive.org/details/surah-al-ikhlas-quran-tafsir-org-saranbi-pdf/page/n1>.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석가들은 예외적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신학적 보충 설명을 더해 보려고 노력한다. 현대 꾸란 연구자들 사이에서 역사비평적 접근을 통하여 전통주의적 해석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을 풀어 보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이 구절에서 사용된 'aḥad에 대한 언어적 기원에 대해서 독일의 저명한 꾸란학자 Angelika Neuwirth는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אֶחָד” ('akhad)“이 꾸란의 구절에 반영된 것이란 주장을 한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다. Gabriel Reynolds 역시도 이 수라에서 'aḥad이나 aṣ-ṣamad등이 모두 불분명한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어휘적 의미를 고려하기 보다는 운율에만 집중한 구성이라는 개연성을 던지고 있다.³⁰ 공일주 역시 꾸란 해석에 있어서 아랍어 수사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산문의 각운(saj')가 이 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준다.³¹ 즉 여러 문장들의 끝이 동일한 운율(-ad)을 갖고 있기에 'aḥad의 사용을 그런 언어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설명이 더 타당한지는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구절의 의미를 규정하는 과정에는 언어적 특성을 넘어서서 이슬람 신학적 견해가 주입되어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Q 112:2 “그는 알라, 모든 것이 의존하는 근원인 분”

이 구절은 단 두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고 그 의미 역시도 난해하다. 일단 구문론적으로는 1절에 연결되어 2절의 allah 역시 1절에 나타나는 주어인 “huwa”에 대한 보어로 간주되고, al-ṣamad 역시도 두번째 보어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1절과 2절이 완벽한 평행 구조(parallelism)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구조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2절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al-ṣamad란 단어의 난해함에 있다. 이 단어는 세 글자(ṣ/m/d)에서 만들어진 명사인데, 전체 꾸란에서 단 한번 이 수라에서만 사용된 hapax legomenon이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이

³⁰ Mehdi Azaiez, et. al., *The Qur'an Seminar Commentary: A Collaborative Study of 50 Qur'anic Passages*, 454. <https://www.degruyter.com/downloadpdf/books/9783110445909/9783110445909-055/9783110445909-055.pdf>. Reynolds는 1절과 2절의 마지막 단어들인 리듬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어휘소(new mexemes)일 가능성을 주장한다. 전체 운율을 보면 1절의 마지막 단어인 'aḥad, 2절의 마지막 단어인 al-ṣamad, 4절의 마지막 단어인 'aḥad이 모두 같은 리듬(-ad)으로 마쳐지는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³¹ 공일주, 앞의 책, 119.

사용되었다.

첫째는 과거 고전 주석가들의 해설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 주석가인 알따바리 역시 이 단어에 대해 여러가지의 뜻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당시에도 이 단어의 의미는 명확히 단정지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³² 과거 주석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주석가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그저 이 단어가 가진 “심오한 의미”를 언급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나타낸다.³³ 즉 객관적 근거에 의한 단어의 의미와 그에 기초한 구절 해석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방법은 근거가 약하게 보이는 접근이며, 이슬람의 후대 신학적 견해에 의해서 단어 자체가 갖지 않은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주입하여(eisegesis) 해석을 하는 위험을 갖는다.

이런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꾸란 학자들은 이 단어의 어휘적 뿌리를 직접 찾아 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실제로 상당 수의 서구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피력했으나 모두가 동의할 만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³⁴ Walid A. Saleh는 “어원적 오류와 꾸란학”이란 글에서 al-ṣamad에 관련하여 연구된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만큼 이 단어에 관련된 불분명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³⁵ 현재까지 이 단어를 연구한 학자들의 많은 제안들 중 흥미로운 접근은 이 단어가 가지는 셈족어(Semitic)들 가운데 특히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의 뿌리를 연계해 정의해 보려는 접근이다. 히브리어의 ṣūr는 “바위(rock)”란 의미인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epithet)으로서 사용된 구절들이 존재하는 바(예를 들면 시 18:2),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al-ṣamad역시 알라에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 사용된 것이란 견해이다.³⁶ 이를

³² □ abarī, *Jami' al al-bayan*, vol. 24 (Cairo, 2001), 731-736. 알따바리가 나열한 의미들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빈곳(hollow)이 없이 채워짐; 2)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음; 3) 뭔가 채움이 필요하지 않음; 4) 그로부터 어떤 것도 태어나지 않음 (Q 112:3절의 의미와 연결되어 보인다); 5) 그의 주권이 완성된 주; 6) 영원함.” https://archive.org/details/taftabry25_26.

³³ 사라비는 al-ṣamad에 대해 여섯 가지의 가능한 의미들을 제시한 뒤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 모든 의미들 혹은 더 많은 의미들이 이 한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 알라가 이 한 단어만을 언급했을 때, 무함마드의 동료들은 그것이 이 모든 포괄적 의미를 가졌다고 이해했으며, 이것이 사고들을 표현할 때 아랍어가 갖는 언어적 우수함이다.”

³⁴ Cuypers and Ryan, *A Qur'anic Apocalypse*, 284-88.

³⁵ Walid A. Saleh “The Etymological Fallacy and Qur'anic Studies,” in *The Qur'ān in Context*, ed. Angelika Neuwirth, Nicolai Sinai, and Michael Marx (Leiden: Brill, 2010), 654-58.

³⁶ 이 주장은 Kobert와 Shedl에 의해 제시되었다. Cuypers and Ryan, *A Qur'anic Apocalypse*, 289-93에서 재인용. Neuwirth 역시 꾸란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영향을 언급하면서 수라 알이클라스가 신명기 6장 4절의 영향을 받은 것일 뿐 아니라, Q 112:3절은 니케아 신조(Nicene Creed)를 정면으로 반박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븐 만주르(d. 711/1311)의 *lisān al-‘arab*에서도 *al-ṣamad*의 의미를 “바위”란 의미로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한다.

실제로 Ahmad Mukhtar Amr가 저술한 아랍어 어휘사전(*mu‘jam allogha al‘arabiyah mu‘āṣrah*)의 정의에 의하면 ṣ/m/d 세 글자의 어근을 가진 단어가 아래의 의미들을 가진다고 나열된다.

[동사] 어떤 사람이 흔들림없이 일관성 있게 곳곳이 서 있음 혹은 저항함 (예: 적들을 대항해서 견고히 서 있음).

[명사] 저항하는 근원지 혹은 서 있는 곳, 높은 장소³⁷

하지만 명사로서의 *al-ṣamad*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그는 고전적 주석가들의 견해들을 그저 종합적으로 나열하고만 있다.

“알라의 가장 뛰어난 이름들 중 하나; 그 의미는 각종 고귀함과 주권에서 완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의존하게 되는 주인이다. 이 단어의 본래 의도는 필요 불가결한 것과 관련되므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음; 그가 창조한 피조물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영속성을 가리킴”³⁸

이상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al-ṣamad*이란 단어의 어근이 품고 있는 내용은 “단단함,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 견고함, 흔들림 없음, 혹은 견고히 서 있는 장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위”란 비유적(figurative) 개념과 크게 멀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유한 명사로서 알라의 호칭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될 경우, 그 의미와 해석은 전적으로 고전 주석가들에게 의존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 구절 해석에 있는 난해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 뒤, 여기서는 일단 전통적 주석가들의 해석에 근거한 이 구절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양한 번역본들에서도 보듯이 과거에는 “알라는 영원하다”는 것에 단순하고 제한적 의미로 번역을 한 반면, 현대로 올수록 이 구절의 의미를 “알라의 자존성, 비의존성, 피조물들이 의존해야하는 존재”에 강조점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알라는 자존하고 스스로 충분한 존재이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 존재인 반면, 모든 피조물들은 알라에게 도움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나타낸다.³⁹

사란비는 “*al-ṣamad*”을 알라의 호칭으로 간주하면서 아래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Qur’anic Readings of the Psalms,*” in *The Qur’ān in Context*, 761-64.

³⁷ Ahmad Mukhtar Amr, *mu‘jam allogha al‘arabiyah mu‘āṣrah*, vol. 2 (Cairo: 2008), 1318.

³⁸ Ibid. 이 부분의 번역에 도움을 주신 공일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³⁹ 공일주도 2절을 의미 번역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알라”라 한다. 공일주, 앞의 책, 196.

심오한 단어임을 강조한다.

- 1) 그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
- 2) 독립적 존재: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들에 의존할 필요도 없는 존재, 어떤 형태의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동반자(companionship)에 대한 필요를 갖지 않는 존재
- 3) 기도의 대상이 되는 존재: 필요할 때 향하여 간구하는 대상, 예배와 칭송의 대상
- 4) 고치고 치료하는 존재: 망가진 것을 고치고 완전하게 하는 존재
- 5) 모든 다른 것들이 필요로 하고 의존하는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함을 위해 매 순간 필요를 느끼는 존재
- 6) 완전한 존재: 그에게는 어떤 결점이나 약점이 없음⁴⁰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1절과 2절의 평행구조를 고려한다면, 주석가들이 내리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듯 하다: 알라는 하나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영존하고, 그보다 더 우월한 자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지해야 하지만, 그는 스스로 존재하고 어떤 다른 것에 필요를 느끼거나 기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란에 단 한번 나타나는 한 단어에 대하여, 정확한 어휘적 의미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수하고 복합적인 신학적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서구학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전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은 어휘의 원래 의미를 찾고, 동시에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역사적 환경을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들은 꾸란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볼만하다고 본다.

Q 112:3 “그는 아무도 낳지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며”

현대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신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 어떤 신이 누구로부터 출생했다 거나 혹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사고 자체는 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정황(occasion)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몇몇

⁴⁰ Abdur Raheem As-Saranbi, “Quran-Tafsir.org: Surah Al-Ikhlās,” 14-22.

<https://ia903000.us.archive.org/14/items/surah-al-ikhlas-quran-tafsir-org-saranbi-pdf/surah-al-ikhlas-quran-tafsir-org-saranbi-pdf.pdf>.

하디스들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쿠라이쉬 부족의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신주의 개념들에 준거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고 한다: “너의 신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성별이 무엇이며, 그의 후손은 누구냐?”⁴¹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본문이 증거하는 바는, “(내가 예배하는) 알라는 (어느 누구를) 낳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로부터) 출생되지도 않았다”이다. 엄밀하게 보자면, 이 본문이 상대하는 대상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모욕적(blasphemy)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이 전제로 하는 의사소통의 대상은 다신교적 우상숭배자들(pagan polytheists)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법적 측면에서, 이 구절의 두 동사는 모두 과거형 부정어(lam)에 미완료동사로 나타나는데 직역하면 과거형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⁴² 즉, 알라는 “과거에 누구를 낳지 않았고 과거에 누구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다”란 말이다. 다신주의적 사고를 가진 우상숭배자들에게 알라의 존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출생하고 또 다른 존재를 출생시키는 자가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금 1절에서 나오는 “알라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임을 재차 부각시키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는 4절(“그와 대등한 존재는 없었다”)에서 다시금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일부 주석가들의 해설에 의하면 “누구를 낳는다”는 의미를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식들을 낳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를 이어갈 후손을 준비하려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알라가 그를 이어갈 후손을 출생한다는 것은 알라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라는 “누구를 낳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다. 알라에게 후손이 있다는 말은 알라는 피조물과 동격으로 만드는 오류를 낳는다고 본다.⁴³

그런데 문제는 꾸란에 있는 다른 구절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 구절에 상반된 주장을 펼쳤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Q 9:30절에서 “유대인들은 우자이르(ujair)를 알라의 아들(ibn allah)라 부르고, 기독교인들(al-naṣāra)은 메시히를 알라의 아들(ibn Allah)라 불렀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⁴¹ Muhammad-Jafari, *Dating the Surah Al-Ikhlās*, 202-206.

⁴² 만일 “알라는 누구를 낳지 않는다”는 일반적 진리를 의미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현재형 번역도 가능할 수 있다. *Study Quran*은 이 첫 문장을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Philips 역시도 첫째 동사를 현재형으로 번역하여 일반화된 사실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경우, 꾸란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부각이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고, 현대적 상황에 더 주안점을 두고 구절을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⁴³ Philips, “Three Shelters”; As-Saranbi, “Surah Al-Ikhlās,” 22-23.

불신자들(kafaru)의 말을 모방하는 것이다. 알라는 그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⁴⁴ 이 구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알라의 아들로 칭했고, 기독교인들은 메시히(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를 알라의 아들로 칭함으로써 알라에게 동등한 자가 있다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즉 수라 알이클라스의 3절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몇가지 주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기 힘들고, 특히 구약의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점은 더구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꾸란 자체가 사용하는 “아들”이란 용어가 Q 9:30절에서 ibn인 반면, Q 112:3절에서 나오는 출생(낳음/태어남)을 표현하는 단어는 w/l/d 어근에서 나온 동사들이다. 즉 아랍어에서 w/l/d는 육체적 출생을 의미하는 반면, ibn이란 단어는 굳이 육체적 출생이 아닌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아랍어는 “ibn allah”를 사용하고, “walad allah”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Q 9:30절에서 기독교인들이 메시히를 “ibn allah”라고 불렀다는 점은 Q 112:3절이 가상적으로 정죄하는 그 범죄 - 즉 기독교인들은 “알라에게 육체적 아들이 있다”고 믿는 것 -와는 동떨어진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적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육신적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고, 편견일 뿐이다. 이 부분을 해명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은 아닐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아랍어 단어- ibn과 walad -사이에 있는 어휘적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에서 그 첫 단추를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꾸란 자체도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드러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사실 더 큰 근본적 문제는 대중화된 이슬람의 가르침 속에는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곡해와 잘못된 허수아비 논증이 전개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꾸란의 구절로서 수라 알이클라스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3절은 원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교리를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며 단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영어권에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는 Philips는 자의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성경 특히 복음서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⁴⁵ 그리고 그가 이해하는 아들의 개념은

⁴⁴ 꾸란 구절의 번역은 저자 본인의 것. 무슬림 학자들은 우자이르를 에스라로 간주하지만 전체 꾸란에서 한 구절에서 이름만으로 언급되고 부차적 설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⁴⁵ Philips, “Three Shelters”

문자적으로는 “육체적 아들”이지만, 비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때 그 개념 자체가 구약의 히브리적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자들로부터 유래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주장들이 이슬람 세계 곳곳에 만연하고 그런 자료들만을 보고 듣고 사는 무슬림들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동격이 있다고 믿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영길의 한국어 꾸란 번역에서는 3절을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라고 번역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원문에서는 “성자와 성부”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 두 단어들은 순전히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최영길은 명시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꾸란의 원문에 충실하지 않다는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과 더불어, 매우 의도적으로 반기독교적 정서를 그대로 노출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Q 112:4 “그와 견줄 자는 아무도 없노라”

이 구절은 과거 시제를 부정하기 위한 불변사(lam)과 'ahad가 함께 사용되면서 강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다.⁴⁶ 즉 직역하면 “그와 동등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가 된다. 의미적으로는 알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일련의 대답으로서 처음에 누구를 낳지도 않았고, 누구로부터 낳음을 받지도 않았으며, 이전부터 그와 동등한 자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1절이 표현하고 있는 알라의 절대적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연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문 자체가 과거형 부정문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번역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형 동사이지만 그것이 일반적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아랍어 용례가 허용된다고 본다.

이 본문에서 핵심적 단어는 kufuwan인데, 이 단어는 “동등한, 유사한, 필적할 만한, 상대에게 적합한(특히 남녀 관계에서)”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⁴⁷ 이 단어 역시 전체 꾸란에서 단 한번

⁴⁶ 이병학, 『종합 아랍어 문법 구문편』 (문예림, 2018), 467.

⁴⁷ Hans Wehr, *A Dictionary of Modern Written Arabic*, ed. J Milton Cowan (Beirut, Librairie Du Liban, 1980), 832. 이 단어의 용례 중 하나는 남녀 사이의 관계를 말 할 때 서로 “사회적 신분의 격이 맞는”이란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파생되어 “배우자(spouse)”란 개념도 현대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부 주석에서는 kufuwan을 설명하면서 al-ā ibah란 단어를 언급하는데, 이 단어의 용례 중 하나로 그런 부수적 추론을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ā abarī, *Jamī'al al-bayan*, vol. 24, 739에서 al-ā ibah란 단어를 언급한다.

이 구절에서만 나타나기에 그 의미를 추론할 꾸란 내부적 근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암시하는 그 존재 혹은 이 구절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알라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들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이 구절을 적용하는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동격화하는 것, 혹은 싸히바(ṣāhibah: 동역자 혹은 배우자로 번역될 수 있다)의 개념으로까지 암시하기도 한다.⁴⁸ 실제로 알따바리의 경우도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동격의 어떤 것, mithl (유사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싸히바”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⁴⁹ 그것은 알라와 일종의 동격이 되는 존재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다.

반면 싸이드 꾸툼은 알라와 견줄자가 없다는 부분을 해설하면서 1절의 “유일성”에 대한 재언급임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 kufwan이란 단어에 대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서로 대항하는 구조를 믿는 양신론에 대한 (two-god belief) 반박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무함마드 당시에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는 양신론을 믿던 조로아스터교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⁵⁰ 꾸툼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 가운데 반기독교적 언급이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시 말하자면, kufwan이란 단어가 암시하는 대상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론적으로 이 구절은 알라의 절대적 유일성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임은 명확하다. 알라의 이름이나, 속성들, 그의 권능 혹은 그의 행위들에 필적하거나 동격 혹은 배우자격으로 간주될 어떤 것도 부정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I. 꾸란 112장에 담긴 반기독교적 변증

이집트에서는 아랍어 교육을 할 때 꾸란의 짧은 구절들을 예문으로 사용해서 문법이나 문형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하게 한다. 아랍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 즉 무슬림 학생들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꾸란의 구절들을 암송하게 된다. 꾸란 112장은

⁴⁸ Tafsir of Ibn Kathir, Sūrah112. <http://www.alim.org/library/quran/AlQuran-tafsir/TIK/112/1>. Q 112 장의 주석적 해설을 반영한 다층적 번역의 필요성을 주장한 Basil Muhammad는 그의 번역 속에서 kufwan을 번역할 때 “동등한 것, 상대, 배우자(a partner) 혹은 그와 같은 것”이라 표현함으로써 “배우자”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Basil Q. Muhammad, “The ‘Multi-layered Exegetical Translation’ of the Qur’ān Explained through Surah(T) Al-Iklas (Chapter 112):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s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5 (2017): 54.

⁴⁹ □ abarī, *Jami’al al-bayan*, vol. 24, 739.

⁵⁰ Qutb, *Tafsir Fi Zilalil Quran: Sūrah112*, 291. <https://tafsirzilal.wordpress.com>.

바로 그런 암송하게 되는 구절들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 이 112장을 외우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 무슬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꾸란 112장을 이해하는 방식은 단순하게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강한 부정을 가진 이슬람의 교리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한국어 꾸란도 기독교적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도를 가지고 112장을 번역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꾸란 112장의 시대적 배경과 본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새롭게 던져볼 가치가 있다: 과연 꾸란 112장은 원래 반기독교적 변론, 즉 기독교인들을 대항하기 위해 주어진 내용인가? 원래 112장 본문은 반기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왜 현재 112장은 일반적으로 반기독교적 이슬람의 교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가?

먼저는 수라 알이클라스의 원문을 보다 엄밀하게 시대적 배경과 이 본문이 나오게 만든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라 알이클라스가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상충된 하디스들의 진술들이 있지만 메카 초기에 주어진 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수라의 배경이 된 사람들은 다신주의적 사고를 지녔던 우상숭배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있어 보인다.⁵¹ 왜냐하면 이들이 던진 질문 자체가 “당신이 말하는 그 알라의 계보는 무엇이요?”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진술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알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구를 낳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슬람의 원류를 찾기 위하여 꾸란 본문에 나타난 언어적, 신학적 특징들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의 결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카고 대학의 이슬람학 교수인 Fred Donner는 꾸란이 사용하는 호칭 가운데 “무슬림”이란 단어보다는 “무으민(mu‘minun: 믿는 자들)”이란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다양한 용례를 분석해 본 결과 믿는 자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⁵² 즉 초기 이슬람 혹은 꾸란의 증거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무으민(믿는자)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에도 수라 알이클라스에서 상대로 하는 종교적 그룹은 다신주의적 사고를 가진 우상숭배자들이었이 더 타당한 결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라 알이클라스가 알라에 대한 질문, 이슬람에 대해 특히 무함마드의

⁵¹ 무슬림 학자들이 편집한 *Study Quran*에서도 이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⁵² Fred M. Donner, *Muhammad and the Believers: At the Origin of Islam* (Harvard University Press, Boston: 2010).

선지자됨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할 때 다시금 언급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라 알이클라스의 연대에 대한 연구를 한 저자들이 주장한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무시할 수 없는 하디스의 기록들이 이 수라를 메디나 수라로 보는 바, 이 자료들을 모두 반영한 설득력 있는 결론은, 메카 초기에 이 수라가 처음 언급된 이후 메디나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이 수라가 다시금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메디나 시기에 이런 변증적 대화의 상대는 유대인들이거나 기독교인들일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 내용 자체는 엄밀하게 보자면 유대인들의 신관이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던 삼위일체적 유일신관을 거부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초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허수아비 논증(straw man argument)을 펼치고, 그저 이전에 있었던 수라의 내용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자 다시금 인용(recite)한 것인데, 하지만 그 논증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 상황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것이다.⁵³

그렇다면 어떻게 수라 알이클라스는 현대 무슬림들 가운데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특히 이슬람의 타우히드 교리에 기초가 되는 이 수라를 기초로 하여 반기독교적 변증(polemic)을 펼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역사적 과정을 밝혀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이 수라가 메디나 시기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알라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반기독교적 적용은 아주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수라 알이클라스가 반기독교적 변증의 근거로 사용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이 시작된 지 약 75년경 (서기 696년) 압두 알 멜릭('abd al-malik) 통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조된 금전과 은전에 수라 알이클라스를 문구로 새겨 넣은 것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와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분위기 속에서 변증적 선포를 하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⁵⁴ 그 이후 타우히드 교리가 수립된 이후에는 수라 알이클라스가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꾸란의 대표적 본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⁵³ "허수아비 논증(straw man argument)"는 논쟁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곡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대표하는 허수아비를 만든 뒤 그것을 반박하는 논증방식인데, 이는 전형적인 논증 방식의 오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경의 주장을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육체적인 아들을 가졌다"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허수아비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알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라 반박하는 것인데, 이것은 흔히 행해지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이다.

⁵⁴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예루살렘의 황금 돔 사원을 건축한 압둘 멜릭('abd al-malik) (696년경) 통치 당시 제조된 동전에 새겨진 문구라고 Saleh는 주장한다. Saleh, "Etymological Fallacy," 657. 동전들에 대한 정보를 위해 https://en.wikipedia.org/wiki/Gold_dinar를 참조하라.

하지만, 현대 무슬림 학자들이 공동 편집하여 출판한 *Study Qur'an*은 수라 알이클라스를 반기독교적 변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장이 수라 알이클라스가 반박하는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⁵⁵ 그만큼 일부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고백이 “육체적 아들”의 개념이 아니란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수라 알이클라스 본문 자체가 불명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유동적(fluid)로 이해되어 사용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꾸란의 본문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본문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전통적 꾸란 이해의 방식을 따르는 무슬림 학자들은 고전 주석가들의 해석에 대부분 의존하여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동일한 본문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발전시키고 특정 그룹이 가진 이슬람의 사상적 교리적 틀을 가지고 꾸란의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꾸란 자체에 내재하는 유동성(fluidity)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수라 알이클라스 역시도 그런 본문이라 볼 수 있다.

수라 알이클라스에 내재하는 해석의 모호성 및 유동성은 특별히 본문의 핵심을 이루는 세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 1절의 'ahad는 아주 예외적 용례로 사용되었으며, 2절의 al-ṣamad과 4절의 kufwan은 모두 꾸란에 한번 나타나는 hapax legomena이다. 즉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뒷받침할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 단지 고전 주석가들의 다양한 설명들이 이 단어들 해석의 기초가 되고 본문이 그렇게 해석된다. 그런데 고전 주석가들의 해석들은 이미 반기독교적 정서들을 내포하고 있고 정확하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허수아비 논증을 펼치고 있다.⁵⁶

현대 꾸란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revisionists)의 연구에 의하여 꾸란의 단어들의 어원(etymological origin), 꾸란의 언어적 특성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 지고 있다. 때로는 이 연구의 결과물들이 전통적 꾸란 이해에 도전을 던지기도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had란 한 단어 속에 무슬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부정하는 “타우히드”의 의미가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약한 것이다. 전통적 해석을 따르는 무슬림 주석가들은 'ahad의 불규칙적(irregular) 사용을 오히려 더 타우히드라는 신학적 틀 안에서 정의하려 하고,

⁵⁵ Nasr, *Study Qur'an*. [Kindle]

⁵⁶ 물론 꾸란의 다른 본문들을 바탕으로 반기독교적 변증의 논리를 펼치고, 그러한 교리적 준거들이 수라 알이클라스 해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유일신관을 반박하는 논리로서 이 수라를 사용한다. 하지만 한 단어 자체에서 그런 신학적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오히려 후대에 형성된 이슬람 신학적 교리들이 본문 해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런 설명은 112장 자체가 원래 친기독교적이었다거나 꾸란의 원래 의미가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음을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꾸란 전체의 신학적 흐름을 고려하면 분명히 반기독교적이다. 그리고 꾸란이 말하는 신관 역시 타우히드란 점도 사실이다. 단지 112장의 내용 자체를 이슬람 타우히드 교리를 수립하는 핵심적 근거로 삼는 것이 꾸란 원문에 대한 엄정한 주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후대 무슬림 주석가들이 이슬람 교리들을 수립한 이후 그 교리적 틀을 가지고 112장을 해석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꾸란 자체는 애매모호한 본문들이 많고 유동성을 가진 본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석가들 혹은 현대 주석가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한 꾸란 본문을 사용해서 이슬람 극단주의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런 꾸란 자체에 내재하는 유동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VII. 나가는 말

이슬람의 타우히드는 반기독교적 변증적 교리이다. 이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수라 알이클라스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곤 하지만 그 본문의 핵심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일방적인 해석이 그다지 굳건한 해석학적 근거에서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라 알이클라스가 후대 주석가들의 해석들을 바탕으로 반기독교적 변증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현대까지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통적 주석가들의 변증은 허수아비 논증방식으로 문제가 있음도 분명하다. 이러한 무슬림 학자들의 반기독교적 정서, 그리고 허수아비 논증을 펼치는 무슬림 학자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런 견해들이 대중 무슬림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갈 것도 분명하다.⁵⁷

⁵⁷ 파키스탄을 배경으로 하는 마울루나 역시도 수라 알이클라스에 관한 주석에서 이러한 허수아비 논증에 근거한 전형적인 반기독교 변증을 전개한다. 한국어 꾸란 최영길 번역도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알이클라스 장이 제시하고 있는 창조주는 예수를 성자로 도입하여 하나님은 성부=성자=성령이라는 등식에 의한 기독교 삼위일체의 하나님과는 다른 성부도 성자도 두지 않는, 즉 타우히드 루부비아(tauheed al-rububiyah), 타우히드 울루히야(tauheed al-uluhiyah), 타우히드 아스마 와 시파트(tauheed al-asma wa al-sifat)가 충족된 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Ahad)님이라는 결론이다.” 최영길 앞의 논문 17페이지. 오히려 고무적인 것은 무슬림 학자들이 편

이상의 연구에 근거하여 어떤 선교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무슬림들이 가진 사고방식, 즉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허수아비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하나됨을 부정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⁵⁸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무슬림 사역을 전개한 사역자들의 경험들과 제안들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⁵⁹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다양한 비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⁶⁰

세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본문들(Christological passages)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골로새서 1:15-20, 빌립보서 2:5-11, 히브리서 1:1-4, 요한복음 1:1-18 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성경본문들의 증거에 주목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복음서들의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저자 소개:

황원주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 부소장, 선교학 박사

집한 *Study Qur'an*은 객관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소개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⁵⁸ Norman L. Geisler and Abdul Saleeb, *Answering Islam: The Crescent in Light of the Cros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135-50. 이슬람의 단일신 교리를 설명하면서 저자들은 헬라 철학자 플로티누스를 언급하는데, 이러한 철학적 기초를 잘 이해하고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슬람의 단일신관 자체가 가진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⁵⁹ Georges Housney, “How to Explain the Trinity to Muslims,” www.biblicalmissiology.org. Nabeel Qureish, *Seeking Allah, Finding Jesus: A Devout Muslim Encounters Christian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6)와 *No God But One: A Former Muslim Investigates the Evidence for Islam and Christian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6)를 참조.

⁶⁰ Geisler and Saleeb, 271-77. 다만 이런 비유들을 사용할 때 흔히 사용되는 잘못된 비유들이 있음에 주의하여 보다 건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8-9세기 이슬람 초기에 아랍어를 사용하여 기독교 변증을 펼친 아랍 기독교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변증에 관한 저자의 연구를 참조하라. 황원주, “8-9세기 아랍어를 사용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변증 연구,” 『아랍과 이슬람 세계』 4 (2017): 13-71.

Abstract

This paper takes an exegetical investigation of Q 112 (sūrah al-ikhlaṣ) with a special reference to its anti-Christian polem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sks a question of how this sūrah incorporates the idea of anti-Christian polemic in regards to “al-tawhīd (Islamic monotheism) versus Trinitarian monotheism” as ordinary Muslims understand this sūrah. This study will attempt to incorporate modern revisionist approaches to the Qur’an in addition to the Muslim traditional approach.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ūrah al-ikhlaṣ itself may not contain as strong textual evidence as one may assume to explicitly prove the doctrine of al-tawhīd. Rather anti-Christian polemic is inserted in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sūrah al-ikhlaṣ from the very early period of Islamic history and thus has been transmitted throughout the ages into the contemporary world primarily by a straw man argument.

Key words

Q 112, sūrah ikhlaṣ, Monotheism, al- tawhīd, Trinitarianism, Anti-Christian polemic, traditional versus revisionist approach.

참고문헌

공일주, 『꾸란과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 서울: CLC, 2016.

이병학, 『종합 아랍어 문법 구문편』, 서울: 문예림, 2018.

최영길, 수라트 알-이클라스(Surat Al-Ikhlās)를 중심으로 한 타우히드(Tauheed) 연구” ,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4 권 제 1 호 (2013): 1-19.

_____,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1983. https://www.gph.gov.sa/ar-sa/DocLib/qurantrans/25_PDFDownloadLinkFull.pdf.

_____, 『꾸란 주해』, 서울: 세창, 2010.

황원주, “ 8-9 세기 아랍어를 사용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변증 연구” , 『아랍과 이슬람 세계』, 4 (2017): 13-71.

Azaiez, Mehdi, et. al. *The Qur’ an Seminar Commentary: A Collaborative Study of 50 Qur’ anic Passages*. <https://www.degruyter.com/downloadpdf/books/9783110445909/9783110445909-055/9783110445909-055.pdf>.

Bauer, Karen. “ The Current State of Qur’ anic Studies: Commentary on a Roundtable Discuss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Qur’ anic Studies Association* 1 (2016): 29-45

- Cuypers, Michel, and Jerry Ryan. *A Qur' ānic Apocalypse: A Reading of the Thirty-Three Last Sūrah's of the Qur' ān*. Lakewood, Atlanta: 2018.
- Donner, Fred M. *Muhammad and the Believers: At the Origin of Islam*. Harvard University Press, Boston: 2010.
- _____. "The Qur' ān in Recent Scholarship: Challenges and Desiderata." In *The Qur' ān in Its Historical Context*, edited by Gabriel Said Reynolds, 29-50. London, Routledge, 2008.
- Droge, A. J. *The Qur'an: A New Annotated Translation*. Rev. ed. Sheffield: Equinox, 2014.
- Houssney, Georges. "How to Explain the Trinity to Muslims."
www.biblicalmissiology.org.
- Muhammad-Jafari, Rasoul, Ali Hasannia, and Hossein Mohammadi. "Dating the Sūrah Al-‘ Ikhlas (Sūrah Al-Tawhid)."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Understanding* 6 (2019): 201-213.
- Muhammad, Basil Q. "The ' Multi-layered Exegetical Translation' of the Qur' ān Explained through Surah(T) Al-Iklas (Chapter 112):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s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5 (2017): 53-56.
- Nasr, Seyyed Hossein. Ed. *The Study Qur'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Harper Collins, NY: 2015. [Kindle]
- Neuwirth, Angelika. "Qur' ānic Readings of the Psalms." In *The Qur' ān in Context: Historical and Literary Investigations into the Qur' ānic Milieu*, edited by Angelika Neuwirth, Nicolai Sinai, and Michael Marx, 733-78. Leiden: Brill, 2011.
- Nickel, Gordon. *The Gentle Answer to the Muslim Accusation of Biblical Falsification*. Calgary, Canada: Bruton Gate, 2015. [Kindle]
- Geisler, Norman L. and Abdul Saleeb. *Answering Islam: The Crescent in Light of the Cros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 Qureshi, Nabeel. *No God But One: A Former Muslim Investigates the Evidence for Islam and Christian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6.
- _____. *Seeking Allah, Finding Jesus: A Devout Muslim Encounters Christian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6.

Saleh, Walid A. “ The Etymological Fallacy and Qur’anic Studies.” In *The Qur’ān in Context: Historical and Literary Investigations into the Qur’anic Milieu*, edited by Angelika Neuwirth, Nicolai Sinai, and Michael Marx, 649-98. Leiden: Brill, 2011.

Stewart, Devin and Gabriel Said Reynolds. “ Afterword: The Academic Study of the Quran: Achievements, Challenges, and Prospect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Qur’anic Studies Association* 1 (2016): 173-183.

아랍어 사전

Wehr, Hans. *A Dictionary of Modern Written Arabic*. Ed. J Milton Cowan. Beirut, Librairie Du Liban, 1980.

‘Umar, Ahmad Mukhtar. *mu‘jam al-lughah al-‘arabiyah al-mu‘āṣirah*. 4 vols. Cairo: ‘alam al-kutub, 2008.

꾸란 주석서 및 하디스 자료들

Al-ḥabarī. *Jami’ al al-bayan*. Vol. 24. Cairo, 2001.
https://archive.org/details/taftabry25_26.

Ali, Maulana Muhammad. *The Holy Qur’an: Arabic Text with English Translation, Commentary and Comprehensive Introduction*. 2002 Edition.
<https://muslim.org/english-quran/index.htm>.

As-Saranbi, Abdur Raheem. *Sūrah Al-Ikhlās*. <https://archive.org/details/surah-al-ikhlas-quran-tafsir-org-saranbi-pdf/page/n1>.

Philips, Abu Aameena Bilal. “ The Three Shelters: A Commentary on Chapters 112, 113, & 114 of the Qur’ān.”
<https://www.kalamullah.com/Books/Tafseer%20of%20The%20Three%20Quls.pdf>.

Quṭb, Sayyid. *In the Shade of the Qur’ān*. Vol. 18: Surahs 78-114.
https://www.kalamullah.com/Books/InTheShadeOfTheQuranSayyidQutb/volume_18_surahs_78-114.pdf.

Tafsir al-Jalalayn. <https://www.atafsir.com>.

Tafsir Maududi. “Sūrah112.” <http://www.alim.org/library/quran/AlQuran-tafsir/MDD/112/1>.

Saḥīḥ Bukhari Hadiths. <https://www.sahih-bukhari.com/Pages/results.php>.

Various Hadiths. <https://sunnah.com/search/?q=ikhlas>.